



2024 세종축제

# 예술이 흐르는 세종호수 초록동네

10.9. 수 ~ 12. 토  
11:00 ~ 18:00

세종중앙공원  
메타세콰이어숲

## 세종호수 초록동네 지도 & 일정표

- 특별기획
- 치유와 참여
- 전시와 공연
- 체험과 마켓

	10/9(수)	10/10(목)	10/11(금)	10/12(토)
날짜 별 상시 11:00 ~ 18:00	12:00 ~ 18:00 비버마을 무엇이든 탈로 변신 숲속 한 평 어린이 벼룩시장	새의 시선: 세종편 무언가로부터 		12:00 ~ 18:00 숲속 한 평 어린이 벼룩시장
	안녕! 숲 명탐정, 낙엽요정을 찾아라 숲놀이터 ‘대룡대룡’ 연계전사: 가능성			
시간 별 프로그램	11:30 ~ 12:30 초록 어울침		12:30 / 14:30 / 16:30 나의 동지를 찾아서	
	12:00 ~ 17:00 (매 시간) 오삼으로부터		  상세 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00 / 15:00 오카리나 공연 12:00 / 14:00 오카리나 워크숍 13:30 - 15:00 핸드팬 워크숍 16:00 핸드팬 공연
	13:30, 15:30 숨 고르기			
	14:00, 16:00 숲속 이런 탈춤?			

환경과 기후위기를 함께 고민하는 세종축제 속 작은 축제,  
 <예술이 흐르는 세종호수 초록동네>는  
 세종시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사이, 아늑한 메타세콰이어 숲에서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형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초록 어울참

선유정(책책)

10/9(수)  
11:30 ~ 12:30

인간과 자연의 합승 그리고, 사계절을 담은 합승

다른 개념의 여럿을 하나로 합쳐 상생의 조합을 함께  
담아 보는 시간. 인간과 자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담은  
도시락을 식이하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나눠 보아요.

사전예약



비버마을

나무타는 목수들

10/9(수)  
12:00 ~ 18:00 상시

이것만으로도 나의 심터는 충분해.

나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우리가 되는 시간.  
나무와 풀잎, 돌 등 자연의 재료들을 사용해 공간을  
만들고 덧붙여 나가며 우리만의 마을을 만들어 나간다.

현장참여



새의 시선: 세종편

나무타는 목수들

10/10(목) ~ 12(토)  
11:00 ~ 18:00 상시

나무에서 바라본 시선은 어떨까요?

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종중앙공원의 낯선 풍경.  
거칠고 두꺼운 나무의 겉을 매만지고, 나무의 냄새를  
맡으며 건물의 꼭대기와는 다른 나무의 정수리에서  
보는 풍경을 함께 나눠보세요.

현장참여



나의 동지를 찾아서

문화로 도도다

10/11(금) ~ 12(토)  
12:30, 14:30, 16:30

오랫동안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

내면의 나를 위한 작은 동지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나를 보살필 수 있는 작은 공간.  
자연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의 재료를  
빌려 동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를 초대합니다.  
언제든 다시 머물 수 있는 나의 동지로.

현장참여

사전예약



숨고르기

날날

10/9(수) ~ 10(목)  
13:30, 15:30

호- 하호호호- 하하하하하- 파하하- 후~

숨을 들이쉽니다. 숨을 내쉽니다.  
숨이 차고, 숨 막히고, 숨 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숨 고르기로 오늘을 쉬어가는  
움직임을 만나보세요!

현장참여

사전예약



숲속 한 평  
어린이 벼룩시장

10/9(수), 12(토)  
12:00 ~ 18:00 상시

내가 이 가게의 주인이요!

정들었던 장난감, 작아져 버린 옷, 아이들이 직접 만든  
공예품, 텃밭 채소까지... 아이가 주인인 물건, 아이의  
손을 거친 물건 등을 직접 판매하는 마켓. 미취학 아동  
~ 초등학교 6학년 셀러를 모집하여 진행합니다.

사전예약



숲놀이터 '대롱대롱'

우리들도 숲속에서 놀수 있대요!

10/9(수) ~ 12(토)  
11:00 ~ 18:00 상시

유아들이 자연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숲속 놀이터는, 세종시민축제기획단 수료자인 두 아이의  
엄마가 공간을 그리며 기획하고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받아 완성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장참여



오삼으로부터

팔꿈치의 활동범위

10/9(수)  
12:00 ~ 17:00 매시간

숲속 이런 탈춤?

천하제일탈공작소

10/9(수)  
14:00, 16:00

자연적 소리 1.  
핸드팬 공연 & 워크숍

한국핸드팬문화재단

10/12(토)  
워크숍 13:30 ~ 15:00  
공연 16:00

자연적 소리 2.  
오카리나 공연 & 워크숍

박윤경

10/12(토)  
워크숍 12:00, 14:00  
공연 13:00, 15:00

무언가로부터

10/10(목) ~ 12(토)  
11:00 ~ 18:00 상시

연계전시  
가능성

윤보연

10/9(수) ~ 12(토)  
11:00 ~ 18:00 상시

무엇이든 탈로 변신!

10/9(수)  
12:00 ~ 18:00 상시

안녕 숲! 명탐정,  
낙엽 요정을 찾아라

10/9(수) ~ 12(토)  
11:00 ~ 18:00 상시

나의 흔적을 따라와봐!

도시 「오삼으로부터」 책을 바탕으로 반달가슴곰  
'오삼이'의 여정이 담긴 팝업북을 직접 걸으면서 읽는  
참여형 전시. 오삼이의 흔적을 따라 숲을 걸으며  
오삼이의 사계절을 눈으로, 귀로 감상해 보세요!

현장참여



현장참여



우리동네 숲속에서 탈춤이 가능해? 가능하지!

전통 탈춤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적 해석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천하제일탈공작소가 초록 동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준비한 한 판 놀이.

현장예약/참여



핸드팬 연주, 어렵지 않아요!

양영진 & 변민경 듀오의 핸드팬 연주를 듣고, 내가 직접  
연주해 보는 워크숍. 한국핸드팬문화재단에서는 악기에  
관련된 교육, 문화활동 기획 등 핸드팬 음악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전예약/참여



만들고 붙여요, 나만의 오카리나

세종시 예술가이자 초록동네의 대표시민 박윤경이  
선사하는 오카리나 선율. 올해는 나만의 도자 오카리나를  
만들고 연주하는 시간까지 더해 관객들과 더 깊게  
소통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어요!

현장관람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까요?

사람 중심이 아닌 다른 무언가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환경과 기후 위기에 관한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전시.

현장관람



나만의 탈을 만들어봐요!

숲속의 나뭇가지, 나뭇잎, 종이박스, 한 옷가지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보는 아주 특별한 나만의 탈!

현장참여



숲을 다니며, 숲을 만지며!

숲 명탐정이 되어 초록동네 안 숲속 이야기들을  
찾아보고, 울긋불긋 단풍잎과 나뭇가지들로  
숲속 요정 만들어봐요!

현장참여



세종호수 초록동네 2024의 주제는

시선과 감각입니다.

매년 체감을 하면서도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무더위를 통과하며  
환경과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갖게 되었던 2024년.

이 상황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암울한 예측과 뉴스에

한숨이 쉬어집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 챙기기도 만만치 않다지만

조금만 다른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면

이 위기의 상황에 관심이 필요한 많은 존재들이

우리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존재들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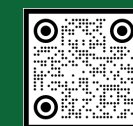
우리는 잃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초록동네에서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나의, 우리의 시선과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화기획 아로리

환경을 생각하는 문화기획,  
지속가능한 활동을 고민합니다.  
연결과 확산을 위한 작은 걸음을  
소중히 합니다.



www.culturearori.com  
@ culture\_arori

함께하는 사람들

총괄 조영선  
프로그램PD 조솔비 | 운영PD 김현우  
디자인 이나래 | 기술감독 배명식  
스태프 강동성 김애정 손수강 이은경

나무타는 목수들 \_ 비버마을, 새의 시선  
팔꿈치의 활동범위 \_ 오삼으로부터  
천하제일탈공작소 \_ 숲속 이런 탈춤?  
문화로도도다 \_ 나의 동지를 찾아서  
한국핸드팬문화재단 \_ 핸드팬 공연 & 워크숍  
선유정(책책) \_ 숲속 어울참  
날날 \_ 숨고르기  
박윤경 \_ 오카리나 연주 & 워크숍